

# 영암교육청, '기후위기대응 어벤져스 학교' 첫걸음 시작

###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과 환경교육 MOU체결

### 지난해 이어 'Green 3 환경교육' 역점과제로 선정돼

영암교육지원청은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과 환경교육에 대한 인력풀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MOU체결 이후, 기후위기 대응 중점학교를 선정하고 4월 8일 영암 여중에서 기후위기 대응 어벤져스 학교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어 2022년도도 'Green 3 환경교육'을 역점과제로 선정된 영암교육지원청은,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시대에 학교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지속성과 체계성을 더하고 학교 급별 실천 교육과정을 제공해 보고자 외부환경 전문가[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장(교수 강희숙),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문광선)]과 협약을 맺고, 기후위

기 대응 중점학교 운영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영암의 특화 환경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여중에서는 환경에 대해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환경 가이드"라는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실천적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해가고 있다. 이날은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환경아카이비스트 황미용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강의 및 체험키트를 수업에 진행했으며, "기후위기로 몸살나는 지구, 왜 그럴까?"라는 주제로 강의, 생태환경 보드게임 등을 통해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한 체험과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다.

참여한 김OO학생은 "듣기만 했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의 크기를 가늠하는 시간이었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할 것인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첫 수업의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방OO 지도교사는 "첫째 막연했던 시작과 비교해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의 체계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해 준 부분이 학교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더했다.

최광표 교육장은 "초·중·고 학생 발달수준 및 학교급에 맞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진 점이 고무적이고 학교현장에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학교 희망하는 학교에 환경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모델을 제공해 보는 등 성숙 단계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곡성교육청, 2022 곡성학부모회연합회 총회

곡성교육지원청은 8일 10시에 곡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2. 곡성학부모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했다.

곡성지역 유·초·중·고 16교 학부모회장들로 구성된 곡성학부모회연합회로 이날 총회에서 도교육청 학부모 정책 설명회와 2021년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2022년을 이끌어 갈 제4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다.

곡성학부모회연합회는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조례에 따라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현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2022년도에도 학부모회 연수 및 동아리모임 지원, 학부모(아버지)상담 지원, 학부모가 만드는 정책 추진, 학부모 강사단 활동, 탄소제로 환경캠페인, 학부모자치지원단 협력 등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들의 가치 있는 꿈찾기를 위한 온

마을 진로진학상담의 날과 우리 청에서 실시하는 같이 배우는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진학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2022년 곡성학부모회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원자 회장은 "지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곡성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교육지원청은 "곡성교육 공동체 주체인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동반자로서 새롭게 구성된 곡성학부모회연합회의 학부모 정책과 곡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를 위한 같이 배우 행복가치 곡성학부모회연합회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이더인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순천교육청, 관계를 더하는 소통리더십 행정실장 협의회

### 유·초·중학교 80여 명 대상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호남호국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초·중학교 80여 명의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혁신 전남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2022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육지원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설명m 하였다.

따라서 단위학교 행정 효율화 및 발전방안

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엑셀런스연구소 이미원 소장의 '관계를 더하는 소통리더십' 연수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관계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각의 힘과 관점을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용덕 교육장은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 현장에서 행정실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로 인해 행정실장의 업무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되어 교육현장의 굳건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2분기 가족체험 특별체험 진행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가족을 대상으로 2분기 중 12회 중 첫 회를 9일에 실시하였다.

2분기 가족체험 특별체험으로 진행되는 '날아라 드론'은 시작 전부터 학부모들에게 큰 관

### 유치원·어린이집 가족 대상

심과 흥미를 끌며 조기마감 되었다. 발달하는 드론 산업과 발맞추어 유아기 때부터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특별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유아들이 조작하기 쉬운 볼드론을 활용하여 우리가족 사진 찍어보기, 간단한 드론 조정법, 이착륙해보기, 자유비행 등의 활동을 하였다. 유아들은 반복해서 도전해 보며 성취감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었다.

이날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유아는 "드론이 하늘로 뜰 때 진짜 신기했어요"라며 기뻐하였

고 한 아버지는 "요즘 미래 산업으로 드론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아이와 함께 놀며 드론을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했다.

김진 원장은 "드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 필요한 VR, AI 로봇 체험 등을 유아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행복기움 가족체험은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2분기(4. 5. 6월)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블랙라이트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